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9월 30일(화) 16시: 연구원 사무국 주간회의
- 10월 2일(목) 16시: 국세청 공익법인 재지정 최종 회의

■ 연구원 소식

- 징검돌 프로젝트 안내 드립니다.

한 권의 책은 누군가에게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고 외로운 하루의 벗이 되기도 합니다.

‘징검돌 프로젝트’는 인문학의 숨결이 닿기 어려운 지역에 책을 전달해 책이 필요한 분에게 ‘생각의 징검돌’이 되어주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모아 주시는 한 권 한 권이 따뜻한 위로와 울림으로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2025년 송년회까지 진행될 이 사업은 지역 내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부활동을 통해 회원과 지역 사회가 보람과 긍정적 변화를 제공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 도서 기증 문의는 연구원 에스엔에스나 유무선 통신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 담당자는 송정현 연구기획실장입니다.

- 연구원에 새 식구들이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들이 회원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춘주 님입니다. 유춘주 회원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좋은날이라는 한옥 펜션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연구원 행사에서 펜션을 이용하며 여러 차례 인사드렸었는데 지난주 회원 전주 방문에서 만나셔서 연구원 식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수도권 지부에서 맹활약중인 서정안 회원의 추천으로 네분이 연구원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양충생 님, 옥치울 님, 정남호 님, 안경란 님이 그 중인공이십니다. 양충생 회원과 옥치울 회원은 서정안 회원의 오랜 친구로 이번 전주 방문에서 연구원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각각 울산과 거제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정남호 회원은 옥치울 회원의 옆지기로 커피와 여행을 좋아하시며 고전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드디어 부산·울산·경남지부가 창립 요건을 갖췄습니다. 지부의 모범으로 우뚝서시길 빌겠습니다. 안경란 회원은 용인에 거주하시며 운동을 좋아하시며 고전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서정안 회원의 옆지기시기도 합니다.

연구원과 함께 하시게 된 다섯 분의 새 식구에게 거듭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 전북지역 회원 연구원 방문

지난 화요일 민정익 회원과 함께 이성림, 박재숙, 나윤경 회원이 연구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변주승 원장을 통해 연구원의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원은 회원 여러분을 위해 언제라도 문을 열고 있으니 앞으로도 편히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5년 3차 역사문화기행 안내드립니다.

9월 열린 고창 역사문화기행에 이어 3차 역사문화기행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사 업 명: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역사문화기행 “화순에서 천년의 역사를 만나다”
- 사업일시: 2025년 11월 1일(토)~2일(일)
- 대 상: 회원 및 동반자 30인 내외
- 참 가 비: 회원 9만원(50% 할인), 비회원 (18만원)
- 10월 5일까지 박애스더 행정간사(010-3408-0128)에게 문자로 신청하시면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 주요일정

일 정		내 용
11월 1일 (토)	08:30~09:00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집결 및 출발
	09:00~11:00	전주대학교 ---> 정암 조광조 유배지
	11:00~11:30	견학 및 해설
	11:30~13:00	점심식사
	13:00~14:30	화순 고인돌 유적
	14:30~16:30	운주사 운주문화축제장
	16:30~17:30	숙소 이동
	18:00~20:00	저녁 식사
	20:00~	자유 시간
11월 2일 (일)	07:00~08:00	기상 및 세면
	08:00~09:00	아침식사
	09:00~09:30	화순 공룡발자국화석산지
	10:00~12:00	백아산 마당바위 탐방
	12:00~13:00	점심식사
	13:00~	해산

10.2 항명 파동 - 1971. 10. 2



10.2항명에 대한 박정희 총재의 '수습단안'을 보도한 <경향신문> 1971년 10월 4일자 1면.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현대사. 단 한 해도 잠잠한 날 없었고 1971년도 예외는 아니었다. 판사들이 외압에 저항한 초유의 '사법 파동'에 이어 오늘의 성남시에서 터져 나왔던 '광주 대단지 폭동'과 실미도 특수대원들은 주석궁 대신 청와대 앞으로 돌진했다. 이러한 사태의 연속에 대해 야당은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다. 내무, 법무, 그리고 경제기획원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연히 공화당에 이를 부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관한 공화당 의원들도 대충 이견이 없었지만 내무부 장관 오치성에 대해서는 사정이 달랐다. 육사 8기 출신으로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그는 당시 공화당의 실세라 할 4인방 (백남억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등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취임 후 4인방이 장악하고 있던 내무 관료들, 즉 경찰서장들과 일선 군수들을 싹 물갈이해버린 그의 행보는 4인방의 경계를 샀던 것이다.

결국 오치성 장관 해임결의안이 통과된다. 각하의 하명을 어긴 반란표가 무려 20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야당 쪽에도 이탈표가 있었을 테니 반란표는 정확히 셈하기조차 어려웠다. 각하는 격노한다. 원래 자신의 3선 개헌을 위해 전면에 내세웠던 4인 체제는 직격탄을 받는다.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에게 명을 내려 국회의원 23명을 남산으로 끌고 가서 혹독하게 심문한다. "반쯤 죽여 버린 뒤 공화당에서 내쫓아라."고 하교하시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끌려갔던 공화당 의원들이 당한 풍경을 보면 그 전설은 사실인 듯 싶다. 일찍이 남조선 노동당 자금부장이었고 각하처럼 전향하여 당시에는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성곤은 멋들어진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강남 1970에서 출연한 정화당 재정위원장은 아마도 그를 모티브로 했던 듯) 그 수염이 뽑히는 곤욕을 겪는다. 길재호는 하도 두들겨 맞아 지팡이를 짚는 신세가 됐다.

나라를 쥐락펴락한다고 자부하던 4인 체제는 공화국 헌법과 법률 따위는 사뿐히 즈려밟고 섰던 대통령에 의해 박살이 났고 헌법 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은 남산으로 끌려가 생뚱을 쌀만큼 두들겨 맞고 몸이 망가졌으며 수염을 뽑혔다.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당하던 시대, 과연 장삼이사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